

2006 전국 16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 및 실무자 워크숍 사회복지사 복리향상과 단결의 장으로

지난 9월 29일 수안보에서는 전국 16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 및 실무자 워크숍이 열렸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이영철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한 전국지회 50여명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협회 40주년 사업을 비롯해 보수교육 법제화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현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토의에 앞서 김성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협회의 많은 내부적 변화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협회의 대외활동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현장과 현안에 대한 문제인식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줄 것”

을 당부했다. 이어 이영철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도 “APPLE 프로 켄트와 IFSW(국제사회복지사연맹)에서의 국제 사회복지사의 날 추진 등 대내외 적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앞으로 협회가 중심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며 임직원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사회복지계의 현안 과제들과 각 부서별 업무추진현황을 지방협회에 보고했다. 2007년 창립 40주년을 기념, 40주년 사발간과 관련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실질적 권익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 복지물 추진안내, 사회복지사 회원카드인 “I AM”카드 런칭에 따른 서비스 혜택 확대 방안 등도 논의되었다. 또 보수교육 법제화 추진과정 설명과 시범 교육 실시, 노인수발보호제도 공청회와 관련된 경과보고 등도 높은 관심 속에 논의되었다. 그밖에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운영현황과 자격발급에 따른 정보교환을 하였으며, 사회복지전문직업 Social Worker의 전국지자체 확대보급 방



▲ 워크숍에 참가한 50여명의 실무자들은 사회복지사들의 복리향상과 단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안, 2007년 협회 공동구매 다이어리와 관련된 의견수렴 등 협회와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개선과 단결을 위한 사업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박용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선현장의 사회복지사들과 지방협회의 발전에 토대를 두고 진행되도록 진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의 안형건 사무국장도 “중앙협회의 변화노력을 보면서 기대를 갖게 된다”고 밝히고, “중앙협회가 좀 더 지방협회와 현장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며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워크숍을 마치는 자리에서 중앙협회 김성이 회장은 “15만 사회복지사는 물론 누구나 일하고 싶어 하는 복지분야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